

2026년
10월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KOICA ODA연구·교육원

No need to wait for reporting

Examining learning from results-based management practic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보고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개발협력 성과기반관리 관행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관한 고찰

오늘날 개발협력 예산이 축소되고, 국제개발협력 기관(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s, IDOs)이 성과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개발 협력기관이 성과 기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 RBM) 관행을 통해 학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은 성과 기반 관리의 순환적 학습 과정(RBM learning loop)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순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 보고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관점에 대해 새로운 발견적 모형인, 휴리스틱 모형(heuristic model)을 제안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기관에서 성과를 통한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에 상정된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다.

15개 국제개발협력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반구조화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학습은 성과기반관리 순환 과정의 후반부가 아닌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계획 및 예측(planning and forecasting)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과 가장 강한 연계성이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과를 통한 학습(learning from results) 관행의 주요 특징으로 학습을 매개하는 다양한 산출물 및 도구(artifacts), 상호작용적이고 역동적인 대화(interactive and dynamic dialogue), 다양한 지식원(knowledge sources)의 활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이 성과로부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향후 성과기반관리 모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 정보의 의사결정 활용을 강화하고, 성과기반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성과기반관리 순환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기관/학술지명: World Development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6.10.

● 저 자: Janet Vähämäki et al.

● 주 제: Results-based management

● 키워드: results-based management(RBM) lear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daptive management, development planning and foresight, policy implementation

● 출처: [10.1016/j.worlddev.2026.107451](https://doi.org/10.1016/j.worlddev.2026.107451)

Negative news, misinformation, and public suppor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Can evidence literacy education build resilience?

부정적 뉴스, 허위정보, 그리고 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 증거 문해력 교육은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가?

2023년 말, 독일 정부는 페루에 자전거 도로 건설 자금을 지원한 일로 대중의 비판에 직면했다¹.

본 연구는 개발협력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거 문해력(evidence literacy)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설문 실험을 실시했다. 하나는 이론에 기반한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³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정부가 지원한 페루의 자전거 도로 건설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비네트 실험(vignette experiment)⁴이다.

두 실험 모두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고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증거는 일관되지 않았다. 증거 문해력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적인 정보의 영향을 일관되게 완충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이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는 성향은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증거 문해력만으로는 부정적인 정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중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추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홍보 및 소통 전략은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민주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증거 문해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¹ 실제로는 무상 원조는 4,400만 유로와 저금리 대출 1억 5,500만 유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독일이 페루에서 자전거 도로에 3억 1,500만 유로를 썼다는 주장이 정치 연설, 소셜 미디어, 신문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여론이 악화됨.

² 증거 문해력 교육(공통 검증): 실험 모두 짧은 영상 교육을 제공하여, 증거 문해력 향상이 위와 같은 부정적 정보의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함.

³ 컨조인트 실험: 원조 사업의 성패 정보와 증거가 가상 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⁴ 비네트 실험: 부정적 내용의 실제 언론 기사 노출이 사람들의 개발협력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본문 1-2p.)



- 기관/학술지명: Development policy review
- 문서종류: Article
- 발행연월: 2026.9. (Volume44, Issue5)
- 저자: Jens Eger, Anna Lotte Klennert
- 주제: Public suppor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키워드: aid attitudes, development cooperation, evidence literacy, media effects, survey experiment
- 출처: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dpr.70091>

Changing the International Discourse on Knowledge and Knowledg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ransforming Our World' to the 'Pact for the Futur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 및 지식 사회에 관한 국제 담론의 변화: '세계의 전환'에서 '미래를 위한 협약'으로

2024년 9월, 유엔(UN)과 회원국들은 '미래 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목표를 재점검했다. 이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인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은 2024년 1월 두 유엔 회원국인 독일과 나미비아에 의해 초안(zero draft)으로 발표되었으며,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일련의 공개 협의 및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각적으로 진행된 시민사회 옹호 캠페인은 이 결과 문서에 '지식'(knowledge)의 역할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통해 이 옹호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는지 고찰한다. 즉, 2015년에 발표된 '세계의 전환(Transforming our World)'과 '미래를 위한 협약' 사이에서 지식 및 지식 사회와 관련된 담론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옹호 캠페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미래를 위한 협약'에서 지식 관련 담론이 다양해졌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를 해당 옹호 캠페인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지역 및 전통 지식(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이 부각된 것은 캠페인이 기울인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으며 적어도 지식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담론이 2015년 이후 한 단계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 기관/학술지명: Sustainable Development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6.9. (Early View)
- 저 자: Sarah Cummings et al.
- 주 제: Knowledge management
- 키워드: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knowledge, United Nations
- 출처: <https://doi.org/10.1002/sd.71632>

Breaking the glass ceiling revisited: examining the lived experiences and reflections of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in Sierra Le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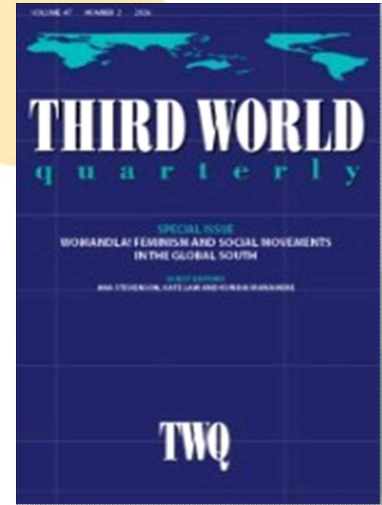
유리천장 깨기 재조명:

시에라리온 관리직 여성의 삶의 경험과 성찰 연구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 여성 비중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기업 경영 분야의 성평등은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시에라리온 내 사회 정의와 성평등을 강력히 옹호하는 비정부기구(NGO)에서조차 전통적인 규범과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여 여성의 경력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시에라리온의 NGO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여성들의 실제 경험과 성찰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화적, 조직적 과제들을 규명하고, 이들이 직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며 경력의 발전을 만들어내는지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반구조화 인터뷰와 문서 분석(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documentary analysis)을 통해 5개 비정부기구(NGO)의 관리직 여성 20명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탐색적 질적 분석 접근법을 채택한다.

본 논문은 문화적 규범, 성별 고정관념, 일과 가정의 갈등, 그리고 차별적인 제도적 관행이 여전히 여성의 경력 발전에 있어 중대한 장벽으로 남아 있음을 밝힌다. 일부 비정부기구(NGO)에서는 유연한 근무 제도나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했으나, 시행상의 불일치로 인해 그 파급영향이 종종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능동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해 경력 성공을 이끌어내며 놀라운 회복력과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 기관/학술지명: Third World Quarterly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6.8. (Latest article)
- 저 자: Victoria Fatima Kargbo et al.
- 주 제: Gender equality
- 키 워 드: Gender and development, empowerment, NGO, managerial position
- 출 처: <https://doi.org/10.1080/01436597.20262707294>